대효 스님 문경 김룡사에서 서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 서옹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했으며, 그 후 성철 스님 · 서암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 문하에서 수행정진. 1976년부터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선 수련회'를 열고 있다. 1982년에는 원명유치원을 개원하여 어린이 선 포교를 시작했다. 지금은 '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원명선원장이자 활인선원장이다.

자기를 가장 못되게 하는 건

간화선이 생사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

화두 의심하는 공부가 깨달음의 시작

대효 스님 (원명선원장)

삼십년 넘게 제주도에서 참선 지도를 해 온 대효 스님은 뭍의 사람들에게도 참선의 참맛을 알려주기 위해 안성의 비봉산 기슭에 새로이 '활인선원'을 개원하였다. 십 년 전에 참선의 활성화를 발원한 어느 불자가 2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기증하여 이루어진 불사이다. 활인선원은 '참선중앙 연수원'으로 법당 · 선방 · 요사채 · 샤워장 · 개인 사물함 등 참선 수행을 위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못자리에서 발아된 씨앗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활인선원이 부처님 가르침의 못자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을 올곧게 증장시킬 수 있는 정진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스님의 바램이다.

"자신을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과 자신을 미혹한 중생이라 여기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한쪽은 무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무지(無智)가 적이고 원수인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은 요원하기 그지없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연히 들린 제주의 원명선원은 폐허와 다름없었지만, 무슨 인연인지 대효 스님은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 대효 스님은 무속신앙이 강한 제주도에서 삼십 년 넘게 오로지 참선 하나로 포교의 원력을 일구어 내었다. 고등 종교인 불교와 토속신앙이 조화를 이루어내기란 쉽지도 않지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버려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애시 당초 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다운 신행'이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1976년부터 제주 원명선원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기 시작했다. 또 '참선불교대학'과 참선 심화과정인 '선불장(選佛場)'을 열어 재가자들에게 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음력(陰曆)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법회 일정을 매주 일요일로 전환했으며, 각종 축원을 폐지하고 오로지 설선(說禪)법회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는 과거 조사 스님들을 보면 법을 듣거나 법을 보이거나 할 때 많이 깨달았기 때문이란다.

이곳 활인선원은 원명선원을 이어갈 것이며 오히려 중앙연수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 한다. "앞으로 가족 단위의 동참 희망자들을 위해 주말 단식수행 등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안거부터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3개월 단기출가 등 안거단식수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효 스님은 어떠한 인생문제도 생사(生死)를 떠나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만이 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불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대다수의 불자들은 염불이나 주력,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러한 것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참선을 해야 하며 참선을 통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 보인다고 하였다.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어야 하지만 진통제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방편은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전부인양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단다.

"인간은 인연과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생사 문제에 대한 답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불교뿐인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무조건 믿어라'는 등 맹신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의지할 곳에 의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의지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본전이 아니라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란다. 그릇된 신념은 종국에는 절망으로 삶을 망칠 수도 있으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채야 하는 것이다.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기도하고 빌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기도해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기도해서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 비율은 5:5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타성에 젖어서 삶의 모든 방식을 그렇게 일관하게 됩니다. 즉 무지로 일관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조사선의 화두 참구는 이미 깨달아 있어서 더 구할 것도 없는 원만 구족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두려울 것이 없고, 굴할 것 없이 당당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대효 스님은 참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부정하고 나서는 분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참선이 어렵다더라, 참선은 상근기가 하는 것이다, 업이 두터워서 안된다더라 등등 참선에 대한 이런 말들은 새겨들을 말이 못된다고 생각해요. 육조 혜능대사는 나무를 해다 장에 파는 일자무식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작나무를 배달하러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가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깨달음은 통찰입니다. 통찰은 지혜인데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통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통찰은 갈고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통찰이기 때문에 한 순간 그릇된 생각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두를 의심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두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곧 깨달음의 출발이란다. 화두를 의심한다는 것은 거짓된 나를 참나로 착각하여 속고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참선을 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뭔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래의 자기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해요. 법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고정관념을 비우는 것이 참선이며,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관념을 버리는 것이 참선입니다. 삶 그 자체가 그대로 선입니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그러한 꾸밈없는 마음을 일상에서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닦을 것이 없는 것이 참선이지요.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량(思量)하고 분별(分別)하는데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있다 · 없다, 맞다 · 그르다 등을 분별하여 단정해 버리는 습성이 꽉 베여 있습니다. 이런 사량 분별은 자기 자신을 비뚤어지게 보게 해요. 눈앞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참선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못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만고의 변치 않는 진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뒤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혁명을 가져오는 것이 참선이란다. 스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지 않고 살겠다는 일념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불완전한 목숨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는 차츰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숨에 대한 집착이 끝없이 욕망을 키워나갑니다. 지위와 명성과 재물을 탐내게 되고, 이것에 대해 끝없이 갈망하게 되고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볼 때는 온 힘을 쏟아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행복이란 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에 허망합니다. 근원적인 생사(生死)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에 초연해질 수 있어요."

대효 스님은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니 양보이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로보인 환단고기 / 전5권 각권 12,000원
전강 대선사 법어집 / 달다 값 15,000원

법 회 안 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완전 수제품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걸이,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공덕하 전법사
02)985-1360 / 010-9964-2550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